

# 결산 심의는 커녕 한달 공친 '8월국회'

2012년도 결산 심의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국회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29~30일, 민주당은 29일 각각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 예정이어서 회기를 이를 남긴 8월 결산국회는 사실상 이날로 끝났다.

여야는 9월2일 개최하는 정기국회에 들어가서도 결산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의 정국 상황으로 볼 때 정기국회도 시작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추석 연휴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를 맞대고, 대통령도 여야의 대표를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모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외투쟁 4주째를 맞은 민주당은 당분간 장외투쟁에 더 비중을 두고 여권을 압박하기로 했다.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 첫 밤을 보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숙투쟁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외치는 국민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회복운동의 일환"이라며 "이렇게 끝낼 거면 (장외투쟁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자체 장외집회를 하고 시민단체 주최로 열리는

## 김한길 "이렇게 끝낼 거면 나오지 않았다" 강경靑도 靑도 "양보 없다"-9월 정기국회 공전 우려

여야는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치 정국을 풀 해법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정기국회 개최를 내세워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9월2일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개회하는 것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정상 개최를 위해 민주당과의 불합점축을 꾸준히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단독회담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상 상대는 여당"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발짝씩 물러서야 정국이 풀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여야가 머

는 전국 순회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해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최대한 당력을 쏟아 여권을 압박함으로써 대치 정국의 출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추석 연휴인 내달 중순까지는 당력을 장외투쟁에 집중할 수 있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무게중심을 원내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참여 방식과 우선 집중할 의제 등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에 무조건 응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워크숍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내란음모 사실로 확인땐 대형 공안사건 비화

## 이석기 의원 수사 '제2의 민혁명 사건' 될까 '인명살상 논의' 등 혐의 유래없어... '경기동부연합' 타깃인 듯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과거 대형 공안사건들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큰 규모의 공안사건으로는 이번 국정원 수사의 대상인 이석기 의원도 연루됐던 1999년 '민혁명(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꼽힌다.

국정원은 당시 민혁당을 1980년대 학원가의

주사와 핵심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 내 혁명전위조직으로서 결성한 지하당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은 1998년 북한 반잠수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 수첩 등을 단서로 남과 공작원과 민혁당의 연결고리를 쫓았다. 당시 잠수정은 남과 공작원이 민혁당의 조직검열 임무를 하고 복귀하던 중 전남 여수 해안에서 격침됐다.

핵심 인물은 1980년대 학원가 주체사상의 교본이었던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씨는 1989년 노동당에 입당하고 밀입북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난

뒤 서울대 법대 동기 하영욱씨 등과 함께 민혁당을 조직했다.

김씨는 1999년 수사 당시 구속됐다가 사상 전향서를 쓰고 '보류'로 풀려났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하영욱씨는 징역 8년형을 받았다. 이석기 의원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비교적 최근에는 2011년 '왕재산' 사건이 있다. 왕재산은 총책인 김도(50)씨가 1993년 김일성 당시 주석에게 지하당을 건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구속한 간첩단이다.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에 진보적 정치활동가들의 모임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고 국내 정치활동가 북한에 전해졌다.

총책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60~1970년대에 '인혁명(인민혁명당) 사건'과 '남민전(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등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여러 발생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거나 조직의 실체가 과장·왜곡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통합진보당과 경기진보연대 관계자들의 내란음모 등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손꼽히는 대형 공안사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연루된 대다수 인명살상 방안을 모의하는 등 알려진 혐의 역시 유례없는 내용이다.

이석기 의원이 또다시 연루됐고 민혁명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 주요 타깃으로 알려져 '제2의 민혁명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국정원 집행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박스를 들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희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용공조작극" 당선 이후 부정경선 의혹·종북논란 핵심

### 통합진보당 강력 반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28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한 10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공안탄압' '용공 조작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진보당은 이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로부터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국정원과 검찰 직원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보고를 접하자 전체 압수수색 대상 및 혐의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낮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조류의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의 용공 조작극을 21세기에

### 이석기 의원은 누구

별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원의 범죄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려는 '촛불의 저항'이 거세지자 촛불시위를 잠재우려는 공안탄압"이라며 "정당 해산을 들먹이며 진보세력을 말살하려 했던 집권세력의 정권유지 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를 일이 아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몰았듯이 모든 민주세력을 내란범죄자로 지목하고 압살해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직원 30여명이 이날 오전 8시께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의원의 보좌진 및 진보당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계속 대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선 이후 부정경선 의혹·종북논란 핵심

후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C의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돌려받은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조직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북(從北)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

그는 "애국가에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한 여러 노래 중 하나"라며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명당) 사건으로 2002년 5월 체포돼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0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메디컬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b>지상5층</b>	501호 내과 502호 치과	<b>지상6층</b>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b>지상7층</b>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b>지상8층</b>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b>지상9층</b>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b>지상10층</b>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b>지상11층</b>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b>지상12층</b>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라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1층 브랜드커피숍 계약완료!**  
**2층 레스토랑 카페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b>지하1층</b>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b>지상1층</b>	롯데리아(맥도널드) 70P
<b>지상1층</b>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b>지상2층</b>	PC방 203P
<b>지상1층</b>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b>지상2층</b>	한정식 387P
<b>지상1층</b>	미용실 23P	<b>지상3층</b>	일식 387P
<b>지상1층</b>	베스킨라빈스 44P	<b>지상4층</b>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